

04

Style 1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pril 2026
vol. 302

Enjoy the Season!



AUDEMARS PIGUET

Le Brassus



CODE 11.59 BY AUDEMARS PIGUET

칼리버 2968 Ø 38mm

rust and silver
Hermès, crossing horizons





PRADA
FINE JEWELRY
COULEUR VIVANTE

Contents

10_SELECTION 서울 근교로 떠나는 봄나들이 룩, 그리고 일상과 여행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워크앤드 룩.

13_ETERNAL ROMANCE 영원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14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6_산업 속 예술 오아시스 2010년대 중·후반, 드 사르트, 블라인드스팟 갤러리, 악셀 페르포트 갤러리, 벤 브라운 파인 아트 등 주요 갤러리가 들어오면서 왕성한 본격적인 아트 지구로 자리 잡았다. 도시와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왕성한 미술 산책은 숨가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마련인 아트 바젤 홍콩(ABHK) 기간에도 빼놓기 아쉬운 '최애 루트' 중 하나다.

18_미식·웰니스·예술이 빛어내는 창조적 영감 홍콩 구룡반도 침사추이의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은 지난가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5년 'The World's 50 Best Hotels'에서 전 세계 1위 호텔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최고 권위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 기간에 머무르면 호텔과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예술 축제의 생동감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19_LGBTQ+를 아우르는 한국 동시대 퀴어 미술의 좌표 한국 미술계에서 '퀴어'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혹자는 퀴어가 한국 미술계에서도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이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



26



18



로에베가 퍼플 페더라이트 백에 미디어 사이즈를 추가하며 라인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구조적 실루엣과 유연한 나팔 캄 스킨 등 아이코닉한 조합은 그대로 유지하고, 롱 톱 핸들을 더해 슬더백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 하나의 백으로 토트부터 슬더, 크로스 보디까지,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30×19×13cm 7백10만원. 문의 02-3479-1785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0



25

는 지금, 아트선재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퀴어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Spectrosynthesis Seoul)>은 기존 흐름과 구분되는 분명한 좌표를 찍는다.

20_SCULPTED RADIANCE 따스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의 자연 친화적 소재, 장인의 공예적 기술력이 만났다. 로에베가 선보이는 파올라 이비자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담은 오브제가 된다.

22_THE INNOVATION IN PRECISION 정밀한 시간 측정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워치메이커 오메가가 또 한번 정밀성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컬렉션, 칸스텔레이션 오퍼버토리를 출시한다.

24_THE COLOR STORY 파스텔부터 비비드까지 이어지는 컬러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무드를 만들어낸다. 개성을 드러내는 매개로 자리한 컬러 워치.

25_FLOWERING STONES 꽃보다 반짝다. 실제 꽃을 능가하는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플라워 링 7.

26_WHISPERS IN BLOOM 영화 <휴먼트>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한 정유진, 아름다운 계절에 만난 그녀와 파스텔컬러가 어우러진 봄의 속삭임.

34_GET THE LIST 갑자기 찾아온 봄처럼 잔잔했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워치 & 주얼리 셀렉션.

36_SOFT STEPS 가볍지만 클래식하게 스프링 룩을 완성하는 뉴 로퍼.

37_FRESH MEN 남자의 볼 스타일링은 스프링 아우터로 결정된다.

38_EDITOR'S PICK 편집부 에디터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 아이템 9.



COLLECTION QUATRE

BOUCHERON

PARIS DEPUIS 1858



플로럴 코튼 블렌드 티셔츠 2백45만원 버버리.



화이트 머더오브펠 소재에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디테일로 입체적인 플라워 모티프를 완성한 로즈 드 노엘 펜던트 클립 2천9백50만원 반클리프 아펠.



트위드 소재에 골드 메탈 스트랩과 로고로 디테일을 더한 클래식 11.12 백. 25.5x15.5x6.5cm, 가격 미정 샤넬.



나비의 날개를 블랙 라커 디테일과 다이아몬드, 머더오브펠로 정교하게 표현한 배백종 드 뒤 링 4백98만원 무쉬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팔린 다이얼과 핑크 가죽 스트랩이 돋보이는 레이디버드 컬렉션 레인보우 34.9mm 5천8백만원대 블랑팡.



18K 옐로 골드에 총 7.0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화려함을 배가한 포스텐 품품 이어링 가격 미정 프레드.



슬림한 메탈 프레임과 핑크 틴트 렌즈가 아우라져 레드 로 무드를 완성하는 선글라스 67만원대 미우리우 by 에실로룩스티카.



아이코닉한 프린트 패턴이 돋보이는 실크 손재 스카프 15만5천원 량방칼렉션.

핸드백 또는 러기지에 포인트로 착용 가능한 니파 가죽 소재의 도그 참 88만원 보테가 베네타.



양쪽에 사이드 포켓이 달린 코튼 소재의 벨트 장식 미니스커트 77만원대 MCM.



라피아 소재로 완성해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클래식 햇 가격 미정 에르메스.



얇은 리드 지퍼로 여닫는 메인 수납공간이 특징인 미디어 프론트 액세스 확장형 체크인 캐리어. 44.5x66x25.5cm, 1백45만원 투미.



옐로와 핑크 컬러 조합에 슬림한 스트랩과 스틸레토 힐을 더한 로즈 버비에 슬링백 펌프스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무쉬론 02-3479-6028 블랑팡 02-3479-1833 투미 02-539-8160 프레드 02-514-3721 피아제 1688-1874 MCM 1600-1976 량방칼렉션 02-3416-4396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에실로룩스티카 02-569-3914 버버리 080-700-8800 샤넬 080-805-9628 에르메스 02-542-6622

for her Selection

플라워 패턴으로 화사함을 더하는 니트와 포켓 스커트, 콤팩트한 러기지, 포인트를 줄 위치와 주얼리까지. 서울 근교로 떠나는 봄나들이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TAE



COLLECTION QUATRE

BOUCHERON

PARIS DEPUIS 1858

에디터 신영미, 스타일리스트 이상준



머더오브펠과 기요세 골드 모티브를 양면으로 구성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블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랩 스킨 소재의 H 시그니처 패치가 돋보이는 캡 82만원 **에르메스.**



히루스의 모노그램 패턴을 새긴 코튼 소재의 데님 밴츠 4백42만원 루이 비통.



플래티넘 힐탑 토버코 컬러의 스웨이드 트루 스타 99만8천원 굿즈스.



블루 크리스털과 파베 세팅, 로듐 플레이팅 메탈이 조화를 이루는 심볼리카(Symbolica) 펜던트 20만9천원 스위로브스키.



18K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다이얼 및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완성한 풀로 데이트 시계 42mm 5천1백 50만원 **피아제.**

아이코닉한 로고 패턴이 특징인 모노그램 데님 자카드 재킷 가격 미정 **MCM.**



워빙 기법으로 엮어 입체적인 패턴을 구현한 송아지가죽 소재의 라지 쇼퍼 백, 46×35×15cm, 8백2만원 **펜디.**

for him Selection

데님과 로고 플레이 아이템, 편안한 착용감의 슈즈와 실용적인 액세서리를 더해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일상과 여행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워크엔드 룩.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KIM YOU TAE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의 릴리 오브 더 벨리 백 찰 1백25만원 디올.



골드 톤 메탈 프레임과 브라운 그라데이션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 43만1천원 **버버리 by 에실로룩스티카.**



데일리의 룩에 클래식한 포인트를 더해줄 브레이디드 레더 벨트 70만원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올리브 그린 컬러의 라이가 M11-PP 시리즈 1천백50만원 **라이카.**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은은한 광채감을 선사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포스텐 브레이드 7백69만원 **프레드.**



아노다이징드 알루미늄 소재와 레더 핸들을 더한 클래식 캐빈 수트케이스, 40×55×23cm, 2백27만원 **리모와.**



에디터 선정형 스타일리스트 **이영은**

반클리프 아펠 1877-4218 디올 02-3480-0104
라이카 1661-0405 에르메스 02-542-6622
리모와 02-546-3920 스위로브스키 02-1522-9065
프레드 02-514-3721 피아제 1688-1874 MCM
1600-1976 굿즈스 02-519-2937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루이 비통 02-3432-1854
에실로룩스티카 02-569-3916 펜디 02-544-1925



Eternal Romance

영원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니 미누 플 파베** 링 메종의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컬렉션으로 센터 스톤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풍부하게 세팅해 볼륨감을 준 플래티넘 소재 밴드 링 가격 미정, 문의 02-6204-1924
소파드 솔리타어 링 메종의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이 잘 녹아든 디자인, 군더더기 없는 플래티넘 밴드에 0.7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1천9백81만원, 문의 02-2118-6085
티파니 티파니™ 세팅 웨딩 링 세계 최초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6개의 프롱이 1.17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플래티넘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려 광채를 극대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타사키 브릴란테 솔리타어 라운드 브릴리언트 링 특유의 세팅 방식으로 타사키 다이아몬드만의 순수한 광채를 더욱 강조했다. 1.03캐럿 센터 스톤 주위에 세팅해 섬세한 광채를 머금은 엘레 다이아몬드가 순수하고 우아한 매력을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그라프 페어 웨딩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메종의 독보적인 원석 레인지와 커팅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4.06캐럿의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를 더한 플래티넘 밴드의 솔리타어 스타일 링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프레드 포스텐 듀오 인게이지먼트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블 패턴 디자인 밴드에 1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불가리 로마 아모르 링 로즈 골드 소재에 중앙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측면 파베 다이아몬드 세팅이 감싸며 로마의 기품과 우아함을 표현한 디자인의 링 가격 미정,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선정인

14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Vivid Fantasy

미우치아 프라다와 라프 시몬스가 전하는 쿨레르 비방뜨(Couleur Vivante)는 예기치 못한 컬러 조합과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는 파인 주얼리 컬렉션으로, 전통적인 주얼리 디자인과 달리 젤스톤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에미시스트, 아콰마린, 마테이라 시트린, 핑크 모가나이트, 오로베르데 페리도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드롭 이어링과 슬리더 이어링, 라인 브레이슬릿, 리비에르 네크리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한다. 섬세하게 완성된 주얼리는 착용하는 순간 얼굴을 은은하게 밝혀, 마치 빛을 머금은 듯한 인상을 선사한다. 모든 제품은 아우라 컨소시엄(Aura Consortium)의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고객이 직접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3442-1831



Power of White

순백의 미를 더하는 화이트 스트랩 워치.

(위부터 차례대로)
워블로 빅뱅 유니크 스파이더 42mm
 투명 스파이더 케이스와 인감 처리한 스트러처드 스트랩이 눈길을 사로잡는 스텔레톤 다이얼의 크로노그래프 워치. 자동 칼리버 HUB1280을 장착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1억1천, 문의 02-540-1356 **브레게 트레디션 담모 7038**
 마더오브벌 다이얼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베젤이 조화를 이룬다. 양면으로 드러나는 그래픽적 무브먼트는 트레디션 컬렉션 특유의 기술적 미학을 강조한다. 6천7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샤발 워치 J12 워치 칼리버 12.2, 33mm
 견고한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특징. 칼리버 12.2 오토매틱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약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블랑팡 빌레레 울트라 슬림 34mm**
 화이트 엘리게이터 스킨에 마더오브벌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장착한 워치로,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4천3백31만원대. 문의 02-3479-183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Raffia Allure

여름을 대표하는 라탄 백은 청량함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동시에 전한다. 로에베의 파올라 이비자 컬렉션은 시즌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이비자의 자유롭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담아 해변과 도심을 넘나든다. 다양한 디자인의 백을 공개했지만, 그중에서도 포천 쿠기를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셰이프의 스윙 백이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다. 모로코 전통 기법인 카누치오 워빙 디테일을 적용해 자연 소재 특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면서도, 견고한 내구성까지 갖춘 점이 돋보인다. 문의 02-518-6416



Everyday Lip Edit

셀린느가 르 루즈 셀린느 컬렉션의 새로운 립 라인을 출시했다. 이번 라인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립 제품으로, 넓은 사선형 스틱 디자인이 간편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일, 스킨, 해바라기 왁스 등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입술에 편안하게 밀착되며, 매트한 질감이지만 부드럽게 발려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다. 향은 '셀린느 오프 퍼퓸머리'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파우더리 노트를 연상시키는 로즈 어코드를 담아 감각적인 사용 경험을 더한다. 컬러는 투명한 앵콜로즈를 포함해 코랄, 브라운, 레드 등 총 여덟 가지로 구성되며, 실버 메탈 케이스와 트리앙글 로고 디테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3.5g, 9만7천원. 문의 1577-8841



Defined Contrast

샤넬이 2026 S/S 시즌을 맞아 투톤 펌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베이지와 블랙,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활용한 컬러 조합 위로 발등을 깊이 감싸는 하이 밴드 라인과 날렵한 토가 어우러지며 간결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여기에 거느디란 스티클레드 힐과 매끈하게 이어지는 라스트가 착용 시 발 라인을 더욱 길고 슬림하게 정돈해 전체적인 비율을 한층 강조한다. 측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컬러 대비와 절제된 디테일, 은은한 광택 소재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데일리부터 포멀한 스타일링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문의 080-805-9628



Linen Lover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2026 봄 시즌을 맞아 라이트 텐 컬러의 여성 셋업을 선보인다. 먼저 승마복에서 영감을 받은 해킹 포켓과 'RL' 및 크라운을 새긴 버튼 디테일이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파커 리넨 재킷은 클래식한 테일러링 구조에 라스틱하면서도 세련된 라센 소재로 다양한 계절에 활용할 수 있는 타임리스한 매력을 담았다. 여기에 같은 소재의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인 '제이든 라센 베스트'를 매치하고, 하리와 허프 라인을 따라 슬림하게 완성되는 핏과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균형감 있는 비율을 연출하는 '딘 리넨 팬츠'를 스타일링하면 글, 올봄 외출 패션은 랄프 로렌 컬렉션으로 완성된다. 문의 02-3467-6560



Born in Black

스위스 럭셔리 워치 메저 IWC 샤프하우젠이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눔(Portugieser Chronograph Ceratanium®)을 공개했다. 세라타눔®은 특수한 티타늄 합금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해 만든 IWC의 독자 개발 소재로, 티타늄의 가벼움과 견고함에 세라미의 수준의 경도와 내스크래치성을 결합했다. 소재 고유의 특성으로 완성되는 다크하면서도 메탈릭한 마감이 특징. 다이얼 역시 블랙으로 통일하여 블랙 워치의 매력과 위엄을 자랑한다. 무브먼트는 IWC 자체 제작 69355 칼리버를 탑재했다. 전 세계 1천5백 피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된다. 문의 1877-4315

Floral Codes

플라워 패턴으로 경쾌한 리듬을 완성한 패션 아이템 셀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플라워 패턴과 퍼 트리밍이 어우러진 호트 부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544-1925,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을 완성한 비비엔 패셔니스타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시퀸 및 비즈 자수로 옐로 플라워를 표현한 비게트 백 8백만원대 **켄디**, 문의 02-544-1925, 화사함을 배가해줄 질타나 클로셰 플라워 클로케 햇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아이코닉한 카멜리아가 연상되는 브로치 가격 **샤넬**, 문의 080-805-9628, 리트로한 플라워 패턴과 경쾌한 컬러감이 어우러져 위트를 더하는 마크라메 에이프런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1670-118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EXHIBITION

〈김윤산·함이합일 분이분일〉호암미술관

올해 91세 조각가 김윤산(1935)은 쿠바 출신으로 80대 후반에야 주목받아 국제적 명성을 얻었던 카르멘 에레라(1915~2022)를 떠올리게 한다. 꾸준히 활동하며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다져왔지만 무명에 가깝다가 2010년대 이후 여성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세계적 흐름을 타고서야 뒤늦게 재평가된 사례다. 1970년대 수직 형태의 나무 조각으로 독자적 조형 언어를 구축했던 김윤산은 안정적인 한국 기반을 뒤로하고 1983년 나무가 풍부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며 새로운 예술적 도전에 나섰다. 이후 40년간 남미를 주 무대로 나무 조각과 돌 조각, 회화 등을 다루며 과감하고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펼쳤던 그녀는 2023년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개인전을 통해 국내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글로벌 무대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호암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애 최초 대규모 회고전 〈김윤산·함이합일 분이분일〉이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다. 전시는 파리 유학 시절 판화와 평면 작품, 1970년대 수직 나무 조각, 아르헨티나에서 제작한 대형 나무·돌 조각과 최근 회화까지 1백70여 점을 선보이며,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되어(舍) 작품이라는 또 다른 하나가 탄생(分)한다는 '함이합일 분이분일'의 조형 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제 고국의 품으로 돌아와 그저 '내가 좋은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김윤산의 70여 년 예술 여정을 만끽하기 좋은 계절이다. 오는 6월 28일까지. 글 **고성연**

〈김윤산·함이합일 분이분일〉 2층 전시 모습



전시장에서 김윤산 작가 호암미술관, 2026

※ 사진 전명은, 호암미술관 제공



로즈우드 홍콩과 함께한 아트 바젤 홍콩(ABHK) 2026

미식·웰니스·예술이 빛어내는 창조적 영감

홍콩 구룡반도 침사추이에는 늘 여행자들의 발길과 에너지가 자연스레 모이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명당 자리'라 불릴 만한 도크사이드, 빅토리아 하버의 장엄한 전경을 한눈에 담은 로즈우드 홍콩(Rosewood Hong Kong)은 지난 가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위치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2025년 'The World's 50 Best Hotels'에서 전 세계 1위 호텔로 선정되며 럭셔리 호텔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3층 높이(전체 65층)에서 도시와 하버를 내려다보며 다채로운 미식, 세련된 디자인, 섬세한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 특히 해마다 춘삼월을 축제로 물들이는 아시아 최고 권위의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ABHK) 기간에 머무르면 호텔과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예술 축제의 생동감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다. 이는 곧 홍콩의 다층적 역동성을 즐기는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 된다.



1 홍콩 침사추이의 랜드마크 로즈우드 홍콩은 빅토리아 하버 전망을 품고 있다. 2019년 봄 문을 열었고, 내후년쯤 서울에도 지점을 열 예정이다. 2 로즈우드 홍콩의 '프리미어 하버 뷰 트윈' 객실. 80%가량의 객실이 시원한 하버 뷰를 지닌다. 3 방대한 면적(3,716㎡)을 뽐내는 웰니스 센터 아시아 홍콩은 심신의 균형을 이끄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로즈우드 홍콩은 네덜란드 아티스트 프랭키와 협업해 인터랙티브 설치미술 '럭키 드래곤'을 선보였다. 5 행 집안의 소장품으로 영국 스타 아티스트 데이미언 허스트의 'Zodiac' 시리즈가 걸려 있는 티 라운지 버터플라이 룸. 6 라이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도크사이드 바. ※ 1~6 이미지 제공: Rosewood Hong Kong

살짝 흐리지만 여전히 맑게 물든 정미빛 노을이 내려앉은 홍콩의 하늘 아래, 빅토리아 하버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로즈우드 홍콩의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방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이 압도적인 전망은 다시 봐도 여전히 실렌다. 4백 13개의 객실 중 대다수는 조금씩 각도를 달리한 하버 뷰를 품고 있어, 가슴이 확 트이는 개방감을 선사한다. 이 화려한 하버 뷰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마치 웅망한 항해를 앞둔 순간, 도시와 나누는 인사처럼 느껴진다. 그 전에 비행으로 지친 심신을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 호텔 전체를 '대저택'처럼 꾸민 디자이너 토니 치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객실은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욕실이 백미다. 모든 객실에 한 쌍의 '더블 싱크' 세면대가 나란히 있고, 우아한 욕조 위에는 나무 소재의 독서대가 놓여 있다. 91개 스위트가 자리한 상층부에 묵는다면, 40층에 자리한 매너 클럽(Manor Club) 라운지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자주 만식이 되는 성수기 아트 주간에는 번잡함을 피해 전망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알찬 구성의 뷔페에 더해 주문형 단품 메뉴를 곁들인 조식, 부드러운 핫샷 아래 즐기는 오후의 티 세트와 디저트, 그리고 저녁에는 랜չ은 한



예술과 도시의 교감, '럭키 드래곤'

로즈우드 홍콩은 ABHK 파트너십에 주목할 만한 예술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고, 그와 잘 어울리는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현지의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디자인이 돋보인다. 곳곳에 숨은 장식처럼 등장하는 박쥐 모티프는 중국어 발음이 '복(福)'과 같아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며, 공간 전체의 구조와 장식 패턴에 반영된 팔괘(옥타곤, bagua) 모양 역시 숫자 '8'과 맞물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올봄 호텔에서 만난 예술적 하이라이트는 로즈우드 홍콩과 네덜란드 아티스트 프랭키(Franky)의 협업으로 탄생한 설치 작품, '럭키 드래곤(Lucky Dragon)'이다. 강력한 길상의 상징인 용과 홍콩에서 기원을 의미하는 숫자 '8'이자 작가에게는 여덟 살의 기억을 환기하는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언뜻 유희적 조형처럼 보이지만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이다. 작품 속 '리틀 프랭키'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순간, 거대한 용이 아이의 손 위로 떠오르며 생명을 얻는 듯 교감을 만들어낸다. 모국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그의 유쾌한 도시적 시선은 이렇듯 관람객과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빅토리아 하버를 배경으로 홍콩에 한정된 '살아 있는 캔버스'로 확장된다.



“객실 안에 있는 듯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신고 샴페인을 훌쩍거리며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는 요트 체험은 해방감을 줄 뿐만 아니라, VIP 프리뷰 기간에 컬렉터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행렬로 야기되는 교통 체증까지 피할 수 있는 실용적 이점도 선사한다”

끼가 될 만한 메뉴와 칵테일을 음미하며 도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매너 클럽의 스태프는 감기에 걸린 필자에게 꿀 '냉'은 생강차를 타주었는데, 배려가 깃든 맞춤형 제인으로 개인화된 여정을 만든다.

도심 속 안식처에서 댕뎁 채우는 오감

호텔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식의 세계는 또 다른 감각의 풍경이다. 미술관 1 스타 레스토랑 레거시 하우스(The Legacy House)에서는 광동 요리 중에서도 '진 짜배기'라 일컬어지는 순데(Shunde) 지역의 뼈어난 미식 전통을 정제된 감성으로 맛볼 수 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수준급 조리법과 절제된 양념, 계절별 메뉴 구성은 요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을 보여준다. 차트(CHAAT)는 인도 길거리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유명한 또 다른 미술관 레스토랑인데, 향신료의 총위를 세심히 쌓아 입안에서 인도 요리의 풍부함을 세련된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여기에 인기 바(bar) 닥사이드에서 라이브 음악과 칵테일을 즐기거나, 객실에서 프라이빗 다이닝을 경험하면, 미식은 여행의 기억 속 핵심 챗터가 된다. 미식과 더불어 아시아(Asaya) 웰니스는 오감으로 느끼는 또 다른 힐링 경험을 선사한다. 프라이빗 웰니스 로지에서의 고유한 리트리트, 빅토리아 하버를 배경으로 한 요가와 명상, 프랑스 브랜드 겐라인(Guerrain)과 협업해 만든 스파 트리트먼트는 감각적인 치유를 넘어 내면의 균형 회복을 돕는다. 부드러운 실크와 천연 옥을 활용해 피부와 근육을 달랜다든지, 몸 위에 한 획 한 획을 그리듯 섬세한 '브러시 터치'를 활용해 림프 순환을 자극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텔 전용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높다. 투숙객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개인화된 웰빙' 프로그램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사적인 의식으로 이끈다.

침사추이와 완차이를 오가는 프라이빗 요트로 즐기는 ABHK

럭셔리 호텔이 즐비한 홍콩에서 미술 컬렉터들이 왜 굳이 구룡반도에 숙소를 두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ABHK의 주 전시장인 홍콩 컨벤션 센터(HKCEC)는 홍콩섬 완차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즈우드 홍콩에서 내놓은 명쾌한 해답이 있으니, 바로 ABHK 기간 동안 투숙객을 위해 꾸리는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다. 객실 안에 있는 듯 편안한 슬리퍼로 갈아신고 샴페인을 훌쩍거리며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는 요트 체험은 해방감을 줄 뿐만 아니라, VIP 프리뷰 기간에 컬렉터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행렬로 번번히 야기되는 교통



7, 8 로즈우드 홍콩이 ABHK 기간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요트' 서비스. 7번은 '럭키 드래곤' 승선 모습. 이미지 제공: Rosewood Hong Kong 9 발터 슈피츠. 'Blick von der Höhe' (1934). CHRISTIE'S IMAGES LTD. 2026 10 강서경 작가의 조각 작품이 놓인 아트 바젤 홍콩 2026 국제갤러리 '인카운터스' 색션. Photo by Sebastiano Pelloni di Persan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11 화이트 큐브 홍콩에서 ABHK 2026 기간에 선보인 '인카운터스' 색션. Photo by Lok Cheng Image courtesy of Mt. Hong Kong



체증까지 사뿐히 피할 수 있는 실용적 이점도 선사한다. 올해 ABHK 전시장에는 2백40여 개의 다국적 갤러리가 참가했고, 9만1천5백여 명이 방문했다. 대형 설치 작품 중 가장 '인카운터스(Encounters)' 색션은 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엿보이는 우주론적 체계인 '오행'을 주제로 했는데, 작년에 작고한 강서경 작가의 다양한 조각 작품군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 국제갤러리의 메인 부스에 위치한 '캐비닛' 색션에서도 강서경의 회화 작품을 집약적으로 선보였다.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풍경은 루이 비통과 건축 거장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협업 부스였다. 지난해 말 타계한 프랭크 게리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구겐하임 빌딩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 유산을 남겼는데, 루이 비통과도 20년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 파리의 재단 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부스에서는 그의 대표 건축 작업을 시작으로 루이 비통 x 프랭크 게리 핸드백 컬렉션, 향수 보틀, 타임피스 등의 작업을 8개 챗터로 나눠 조명했다. 물론 아트 주간에 컨벤션 센터에만 머무는 관람객은 드물다. 도시 전역이 확장된 예술 문화 플랫폼으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티 홍콩은 아시아 경제 40주년을 맞아 게르하르트 리히터, 산유, 발터 슈피츠 등의 작품 목록으로 컬렉터들의 관심을 모았고, 그에 화답하듯 경매 신기록이 쏟아졌다. 하우스앤하우스, 화이트 큐브, 데이비드 즈위너 등 글로벌 메가 갤러리 전시에서는 전시 투어와 작가와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는 등 생생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북한 물인 퍼시픽 플레이스에는 김 크리스틴 선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설치해 관람객이 도심에서 작품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었고, 시주롱 문화 지구(WKCD)의 세계적인 미술관 M+에서 펼쳐진 우리나라 대표 작가 이불 순화전은 공간의 미학과 맞닿으며 리움미술관 전시와는 또 다른 영감을 자아냈다. 아마도 이 주간을 겨냥해 민첩하게 움직였다면 임윤찬의 홍콩 리사이틀 공연까지 섭렵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을 것이다. 홍콩의 다층적 예술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주간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아트 위크'라 불릴 만하다. 글: 고성연(홍콩 현지 취재)



홍콩섬 남쪽 왕척항(Wong Chuk Hang) 미술 산책

산업 속 예술 오아시스

홍콩섬의 중심가가 점점 더 뻗어내리고, 땅값이 치솟으면서 미술계는 새로이 숨 쉴 공간을 찾아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끝자락, 왕척항. 현대미술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듯,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이 산업 지구에 2010년대 초반부터 작가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가 하나둘 입주하며 서서히 예술적 기운을 띠게 됐다. 이후 2010년대 접어들어, 블라인드스팟 갤러리(Blindspot Gallery), 드 사르트 갤러리(De Sarthe Gallery), 악셀 페르포르트 갤러리(Axel Verwoordt Gallery), 벤 브라운 파인 아트스(Ben Brown Fine Arts) 등 주요 갤러리가 들어오면서 왕척항은 본격적인 아트 지구로 자리 잡았다. 일부 떠난 갤러리도 있었지만, 남은 공간과 더불어 유럽, 일본, 중국 등 다국적 갤러리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오히려 더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와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왕척항 미술 산책은 숨 가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마련인 아트 바젤 홍콩(ABHK) 기간에도 빼놓기 아쉬운 '최에 루트' 중 하나다.

콘크리트 숲속에 예술을 숨긴 미로 같은 동네

투박하기 그지없는 빛바랜 오랜 건물들. 왕척항 거리와 골목은 산업적 면모가 완연히 드러나는 낡은 건물로 가득한데, 현대미술을 '업'으로 삼는 상업 갤러리와 실험적 작업을 선보이는 팝업 전시 공간이 들어서 있는 공간이 많다. 하지만 '살아 여가에도 갤러리가 있다'고? 싶은 분위기의 건물이 대다수라 방심하다가는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이기에 열심히 지도를 살펴야 한다. 낡은 엘리베이터, 오래된 철문, 높은 천장, 거친 콘크리트 벽과 바닥... 산업적 질감과 현대미술의 상상력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햇살이 스며들면 공간과 작품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창문 너머 보이는 진초록 산 풍경을 절로 '힐링'을 누리곤 한다. 올봄 왕척항 아트 산책의 첫 방문지는 프랑스인 부부가 운영하는 드 사르트 갤러리(De Sarthe Gallery)다. 글로벌 갤러리 브랜드로 홍콩 센트럴에 진출하다가 2017년 왕척항으로 이전한 뒤, 대형 설치와 국제 작가 전시로 이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획을 선보이며 산업 공간의 본래 질감을 살린 예술적 무대를 제



1 홍콩 남부 왕척항 풍경. 2 왕척항에 일찍이 터를 잡고 낡고 건조한 콘크리트 숲속 '갤러리 동네'를 만든 선두 주자 중 하나인 블라인드스팟 갤러리 입구. 3 서로 다른 세대와 감각의 스웨덴 작가 2인전을 선보인 칼 코스티알 갤러리 설치 모습. 4 흥미로운 실험적 작업에 초점을 맞춘 와오노 아트의 전시 프로젝트 '언더 시티'. 5 일본 갤러리 WKM에서 열리는 '사진작가 그레그 지라드(Greg Girard) 개인전 <HKG-TYO 1974-2023>. 6 올해 문을 연 안테나 스페이스 개관전 (Horizons: South) 전시 풍경. 7 영국 갤러리 로시 & 로시의 왕척항 공간에서 진행 중인 전시 <胡 / who are you?>. ※ 1~7 Photo by 고성연

공한다. 올해 ABHK 기간에는 잭슨 폴록, 빌립 데 코닝 등과 더불어 미국 추상표현주의 거장 중 하나로 꼽히는 잭 트위코프(Jack Tworok) 전시를 여기서 만날 수 있었다. 건너편 건물 15층에 자리한 블라인드스팟 갤러리(Blindspot Gallery)는 왕척항 미술 지구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홍콩 갤러리다. 홍콩을 대표하는 트레버 영(Trevor Yeung)의 설치와 영상 등을 접할 수 있는 개인전 (swallowing rumination, gracefully), 그리고 스웨덴 출신으로 광둥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하는 작가 램-시 램(Lap-Say Lam)의 아시아 지역 첫 개인전 (Bamboo Palace, Revisited)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중 두 문화의 경계에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로 텡(Lo Ting, 인간과 물고기의 혼합 형태)이라는 홍콩의 신화적 존재를 매개로 한 서사를 시각화한 영상 작업 'Floating Sea Palace' (2024)가 공간의 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아트 생태계의 소유주를 품은 듯한 다양성

담론적 실험과 국제적 시각이 교차하는 새 플랫폼의 등장도 눈에 띈다. 상하이에서 출발해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업과 비정형적 공간 구성을 통해 중국 현대미술 신에서 독자적 위상을 구축해온 안테나 스페이스가 왕척항 리더 센터(Leader Centre) 19층에 문을 열었는데, 개관전 (Horizons: South)는 타이베이 당다이 아트 페어의 공동 디렉터를 지냈고, 최근에는 선전의 신설 미술관 JD 뮤지엄의 수장으로 임명된 로빈 페컴(Robin Peckham)이 기획을 맡았다. 능통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미국인으로 국제 예술계의 중요한 담론가로 주목받는 인물인데, '지평선(horizon)'을 매개로 오늘날 세계의 단절과 연결, 이미지의 순환과 재구성, 그리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예술적 선택이 갖는 의미를 사유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왕척항 골목을 거닐다 보면 이 동네에서 흔히 않은 신식 건물인 랜드마크 사우스(Landmark South) 빌딩이 나온다. 당 컨템퍼러리 아트, 캡슐 등 여러 갤러리가 모여 있는 아트 클러스터 건물이다. 지난해 입주한 런던·스톡홀름 기반의 칼 코스티알(Karl Costyál)은 서로 다른 세대와 감각을 지닌 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듀오 전시'를 열었다. 빛과 색채를 기반으로 풍격 속 상상적 공간을 구축하는 회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스웨덴 작가 카밀라 앙스트룀(Camilla Engström), 그리고 2003년생 스웨덴 신진 작가 율리우스 노르드빈테르(Julius Nordvinter)의 벤치가 흥미롭다. 여기에서 가까운 데릭 인디스트리얼 빌딩(Derrick Industrial Building)에는 일본 도쿄 기반 아트 컬렉티브 사이드 코어(SIDE CORE)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와오노 아트(Waonno Art)가 자리한다. 폐수 처리 시설과 버려진 지하철거 같은 도시 아래 숨겨진 공간을 소재로 거대한 가상 지하 도시를 담은 설치형 프로젝트 '언더 시티(Under City)'가 올봄의 전시작이다. 갤러리 산책의 다른 끝자락에는 M 플레이스(M Place)라는 또 다른 클러스터 빌딩이 있다. 화이트스톤 갤러리(Whitestone Gallery), 아트 퍼스펙티브(Art Perspective), LIS10 등 여러 갤러리가 자리 잡은 현대식 건물로 왕척항 MTR 역 근처에 있다. 이 중 1985년 런던에서 설립된 로시 & 로시(Rossi & Rossi)에서는 현재 슬라브스 & 타타르스(Slavs and Tatars)의 솔로 전시 (胡 / who are you?)가 진행 중인데, 유라시아의 광대한 지리·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과 소속, 언어와 종교적 상징을 유쾌하고 사유적으로 탐구한 구성이 눈길을 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른 인근의 E 타 팩토리(E Tat Factory) 빌딩에는 홍콩의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 패러사이트 출신인 커슨 쉥(Cusson Cheng)이 공동 설립자로 나서 LGBTQ+ 아티스트와 여성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전시 기획을 지향하는 포디엄 갤러리(Podium Gallery)도 자리한다.

산책 여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수자 작가도 소속된 악셀 페르포르트 갤러리(Axel Verwoordt Gallery, 벨기에)와 WKM 갤러리(일본)가 입주한 건물인 코다 디자인 센터(Coda Designer Centre)도 지나칠 수 없다. 사실 아무리 재빨리 움직여도 하루만으로는 제대로 된 관람을 하기에 모자란 밀집도와 구성을 뵈낸다. 온통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블랙 큐브' 공간이 인상적인 엠프티 갤러리(Empty Galler)는 같은 권역이기는 하지만 도보로는 꽤 먼 애버딘에 있는데, 그냥 왕척항으로 이사를 와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마저 든다. 글 고성연(출처: 현지 취재)



Exhibition in Focus

아트선재센터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LGBTQ+를 아우르는 한국 동시대 퀴어 미술의 좌표

한국 미술계에서 '퀴어'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주류로 치부되었지만, 이강승·정은영·최하늘 작가 등 성 소수자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퀴어적 요소를 작품에 은유적으로 녹여낸 이들이 약진하며 판도가 달라졌다. 이들의 작품이 대안 공간뿐 아니라 갤러리현대,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 등 주류 전시 공간에 출품되는 것은 물론, 일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올해의 작가상'에도 선정됐다. 혹자는 퀴어가 한국 미술계에서도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이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금, 아트선재센터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퀴어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Spectrosynthesis Seoul)>(6월 28일까지)은 기존 흐름과 구분되는 분명한 좌표를 찍는다.

지난 3월 20일 아트선재센터에서 한국 동시대 퀴어 미술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Spectrosynthesis Seoul)>이 개막했다.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홍콩에서 컬렉터 패트리 선이 설립한 섀프라이드재단이 주최한 <스펙트로신테시스>는 2017년 대만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2019년 태국 방콕 아트 앤드컬처센터, 2022년 홍콩 타이쿤에서 열리기도 했다. 섀프라이드재단과 아트선재센터의 협업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는 '서울'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작가 74명(팀)의 작업을 조망한다. 전시 공간은 지하 1층 아트홀부터 지상 3층에 이르는 전시실, 로비, 복도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고, 주제는 크게 2개 파트로 나뉜다. 아트선재센터의 예술감독이자 이번 전시를 총괄한 김선정 감독은 첫 번째 파트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이자 초청 큐레이터 이용우 교수는 두 번째 파트 '텐다: 언젠대, 어디서든'을 기획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선정 감독은 감성화 작가를 초대해 그의 개인적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벽돌이 개이다'를 커밋해도록에 수록했다.



어내는 동시에 변화하는 신체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주로 소개한다. 좌석의 공중과 양옆, 복도 등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아트홀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구자혜 작가의 '퇴장하는 등장'이다. 이 작품은 퀴어 청소년의 존재를 다른 작가가 쓴 희곡 '퇴장하는 등장 I'과 '퇴장하는 등장 II'의 스크립트 중 일부 텍스트를 확장된 곳곳에 적거나 캐비닛에 프로젝트로 투사한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죽을까지 생각할 정도로 혼란을 겪는 퀴어 청소년의 이야기로 퀴어 미술 안에서 주변화된 담론을 내세웠다. 지상 1층은 밝은 조명, 높은 천고로 지하 1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양면의 조개껍데기'라는 하나의 파트로 묶이는 만큼 지하 1층의 작품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의 작업을 다룬다. 생명체가 태어나고 분화되는 방식과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규범화되어왔는지 탐구하는 작가 캔디스 린의 여러 콜라주 작업, 몸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어긋나는 순간 발생하는 불편함을 시사하는 전우진 작가의 '니트 400kg' 등을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파트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지상 2층은 섀프라이드재단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들의 다른 작품이나 신작을 함께 선보인다. 또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퀴어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1 지상 2층에서는 퀴어 미술의 지형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 2026. Art Sonje Center all rights reserved. 2 전우진, '니트 400kg', 2026. 검은색과 흰색 전신을 한 코 고무뜨기로 뜨개질, 알루미늄 대바늘, 원형 스테인리스 파이프, 가변 크기, 작가 제공. 3 지하 1층에 설치된 조이쉬의 '그레이트의 서약: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26. 연극, 공간 설치. 5 캔디스 린, '최소화 남성', 2015. 흑연,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26. 연극, 공간 설치. 6 마크 브래드포드, '남바덕(Nadri)', 2026. 캔버스에 혼합 재료, 243.9x774.7cm. ※ 1, 3, 4, 6 사진: 남서현, 아트선재센터 제공



작업이나 동시대 신작을 함께 배치해 퀴어 미술의 지형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지상 2층 전시 공간의 주요 작가이자 최근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인전을 마친 마크 브래드포드는 전시 개최 전, 현장에 머물며 제작한 신작 '남바덕(Nadri)'을 통해 짐 크로 법체제 아래에서 흑인의 삶이 구조적으로 억압받던 시기와 20세기 후반 에이즈 위기의 시간을 환기한다. 전시 시작, 후각적, 신체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3층 전시실에서는 두 번째 파트인 '텐다: 언젠대, 어디서든'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 작가 20인, 홍콩 작가 1인의 작업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다시 '기억', '장소', '형식'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익선동, 낙원동, 이태원동 등 퀴어적 장소성을 재해석해 한국 퀴어 미술의 현재를 조망한다. 그동안 퀴어의 역사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해 아카이브 작품이 주를 이루는 기억 섹션을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 세심한 공간 구성이 인상적이다.

전시를 모두 관람한 뒤에 든 생각은 '다소 혼란스럽다'였다. 다양한 이야기를 함의한 수많은 작품이 미술관 전 층에 걸쳐 빠르게 들어선 탓이다. 그러나 이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작가를 포함해 다양성을 확보'하기를 의도했다는 이용우 교수의 말을 상기했다. 이는 무지개색으로 분해되는 현상이자 다양성을 상징하는 '스펙트럼(spectrum)'과 서로 다른 요소가 합성되는 과정을 뜻하는 '신테시스(synthesis)'를 결합한 전시명에서도 드러나는 방향성이다.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 퀴어 미술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가시화되기 쉬운 집단은 주류를 차지한다. 반면 젠더 규범을 세차게 흔드는 집단은 그 안에서조차 주변부를 맴돌게 된다. 이런 구도를 감안한다면, 과연처럼 느껴질지라도 다양성을 품었다는 점만큼은 의미를 지닌다. 재단 소장품뿐만 아니라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들의 다른 시기 작업, 신작 커미션 등을 아우르며 지역성과 더불어 독자성을 확보한 정도 궁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은 퀴어를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하기보다, 서로 다른 결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상태 자체를 드러낸다. 다소 혼잡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복잡함은 지금의 퀴어 미술이 놓인 자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명확한 담 대신 다양한 질문을 남기는 이 전시는 한국 동시대 퀴어 미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가능하게 한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Sculpted Radiance

따스한 색채와 부드러운 질감의 자연 친화적 소재, 그리고 장인의 공예적 기술력이 만났다.
 로에베가 선보이는 파올라 이비자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비정형적 조형미를 담은 오브제가 된다.
 안온한 햇살 아래 자연의 빛과 컬러, 유려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여름 풍경을 미리 펼쳐본다.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라피아 핵심 생산지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제작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다. 실을 정교하게 감아 완성한 입체적인 애니그램이 특징인 이클립스 바스켓 백 45×25×15cm 2백30만원, 양파 특유의 결과 색을 워트 있게 구현한 어니언 스프라우트 참 1백10만원 모두 로에베.

어부의 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물고기 참이 포인트이며 나파 램 스킨 플랩과 핸들, 그리고 라피아 소재가 어우러진 페스카도르 백 23×22×8cm 4백50만원, 물조리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를 전통적인 카누티오 기법으로 제작한 워터링 캔 백 20×12×11cm 2백50만원, 참으로도 활용 가능한 딸기 모티브 스트로베리 코인 케이스 1백20만원 모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에디터 김하얀



에디터 김하얀



The Innovation in Precision

정밀한 시간 측정에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위치메이커 오메가가 또 한번 정밀성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역사적인 컬렉션을 출시한다. 2023년 설립된 측정 연구소 프리시전 레버토리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최초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획득 투 핸즈 위치로, 1952년 오메가 최초 양산형 크로노미터 컬렉션 컨스텔레이션의 계보를 잇는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컬렉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새로운 어쿠스틱 테스트 방식 개발로 우리는 최초의 투 핸즈 마스터 크로노미터 시계인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by 레이날드 에슐리만 (Raynard Aeschlimann, 오메가 CEO)

정확한 시간 측정은 시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 정밀한 시간 측정 기술의 선구자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위치메이킹의 경계를 확장해온 오메가에서 또 한번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2023년 오메가에서 설립한 공식 인증 측정 연구소인 프리시전 레버토리(Laboratoire de Précision)에서 개발한 새로운 어쿠스틱 테스트 방식을 통해 투 핸즈 위치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한 위치 컬렉션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Constellation Observatory)'를 탄생시킨 것. 이는 프리시전 레버토리 설립 2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해당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음향 기반 테스트와 광학 핸즈 트래킹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방식을 적용했으며, METAS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초침 없이도 크로노미터 및 마스터 크로노미터 테스트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시계 역사상 최초로 시·분 투 핸즈 위치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한 사례다. 프리시전 레버토리는 독립적인 공식 인증 기관으로 자체 측정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기관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과 관련해 METAS의 인증을 받았으며, 크로노미터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험 기관으로서 SAS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산업 전반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기밀성이 보장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리시전 레버토리에서 모든 크로노미터 및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과정을 하나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무선 독립형 유닛을 개발했다. 이 장비는 듀얼 매트릭 테크놀로지(Dual Metric Technology)를 기반으로 25일간의 테스트 중 시계의 '틱(tick)'과 '탁(tack)' 소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동시에 온도, 위치, 자기장, 기압 등의 환경 데이터를 함께 기록한다. 기존 테스트 방식이 초침 위치를 촬영해 하루 한 번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다면 듀얼 매트릭 테크놀로지는 테스트 시작 순간부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파수 불규칙성, 온도 및 기압 민감도, 자세 변화, 진폭

변동 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며, 단순한 이상 여부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정밀성에 완벽함을 더한 디자인적 정수** 컨스텔레이션은 1952년부터 정밀성에 대한 오메가의 철학을 상징해왔다. 오메가는 이번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컬렉션으로 다시 한번 유산을 계승하며 두 가지 신규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총 9종의 레퍼런스 선보인다. 무브먼트를 먼저 살펴보면 칼리버 8915는 그랜드 럭스(Grand Luxe)와 럭스(Luxe) 버전으로 나뉘어 각각 950 플래티넘-골드 에디션과 18K 골드 컬렉션 모델 4피스에 탑재되는데, 칼리버 8914 스탠다드(Standard)는 오-메가스틸(O-MEGASTEEL) 모델 4피스에 탑재된다. 칼리버 8915 그랜드 럭스의 스텝부터 살펴보면, 로터 베이스는 18K 세드나™(Sedna™) 골드도 이뤄져 있고, 정교한 스파이럴 마감과 풀리싱한 외곽 존이 특징이다. 옴저버토리 메달리온은 18K 화이트 골드도, 레이저 각인 처리했으며 어벤추린 글



- 1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컬렉션. 칼리버 8915 그랜드 럭스를 탑재한 플래티넘-골드 에디션 1피스와 칼리버 8915 럭스를 탑재한 모델 4피스.
- 2 칼리버 8914를 탑재한 오-메가스틸(O-MEGASTEEL) 네 가지 모델의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 3 오-메가스틸 네 가지 모델에 탑재한 무브먼트 칼리버 8914.
- 4, 5, 6 2023년 오메가에서 설립한 공식 인증 측정 연구소인 프리시전 레버토리. 이곳에서 2년 만에 최초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한 투 핸즈 위치 기술을 개발했다.



라스를 적용한 에나멜로 다크 블루 컬러 하늘을 표현해 특별함을 부여했다. 여기에 8개의 별을 더하고 동 형태의 천문대는 반투명 화이트 오팔 에나멜로 마감했다. 칼리버 8915 럭스는 오메가 역사상 최초로 18K 문사인™ 골드 로터와 밸런스 브리지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로터 베이스에는 이라베스크 패턴의 제네바 웨이브를 적용했으며, 외곽 존은 수평 브러시드 마감으로 완성했다. 메달리온은 18K 골드도 제작했으며, 레이저 각인 요소와 매트 및 풀리시드 마감의 대비를 통해 입체감을 강조했다. 오-메가스틸 모델에 장착한 칼리버 8914 스탠다드는 칼리버 8915 럭스를 로동도금 마감으로 재해석한 버전이다. 이번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컬렉션의 케이스 외관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오메가의 대표 디자인 코드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성했으며, 1948년 출시한 센터나리(Centenary)에서 시작된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도데카곤(12각형) 파이-팬 다이얼, 6시 방향의 컨스텔레이션 스타, 케이스 백의 옴저버토리 메달리온을 적용했다. 또 기요세 마감, 카이트 형태의 인덱스, 도핀 핸즈, 도그 레그 러그 등 컨스텔레이션의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칼리버 8915 럭스를 장착한 네 가지 18K 골드 모델은 각기 하나의 완결된 프레스스 메탈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케이스, 핸드 기요세 다이얼, 무브먼트까지 모두 18K 세드나™ 골드 또는 문사인™ 골드도 제작해 통일된 디자인을 이루며, 가죽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 옵션으로 제공한다. 18K 캐노푸스 골드™ 모델은 간결한 디자인의 시계에 18K 세드나™ 골드도 장식한 무브먼트를 결합했으며, 이는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래티넘-골드 에디션은 오메가의 프레스스 메탈 라인업을 완성하는 모델로, 브랜드의 네 가지 독자적인 프레스스 메탈 합금을 하나의 컬렉션에 처음으로 집약했다. 칼리버 8914 스탠다드를 탑재한 오-메가스틸 네 가지 모델은 뛰어난 경도와 기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선택되었다.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블랙 세라믹 파이-팬 다이얼은 세라믹 소재로 도데카곤 형태의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해 장기간의 개발이 요구된 기술적 성과다. 나머지 세 가지 모델에는 스텝핑된 그루브 패시를 적용한 컬러 다이얼을 장착해 다양한 무드를 완성한다. 이번 최초 투 핸즈로 완성한 컨스텔레이션 옴저버토리 컬렉션으로 오메가는 또 한번 정밀한 측정의 한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정성민

The Color Story

파스텔부터 비비드까지 이어지는 컬러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무드를 만들어낸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 **에거 르클트르 리베르스 듀에토 미디엄** 스틸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과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쿨한 대비를 완성했다. 다이아몬드 베젤로 청량한 인상을 강조하고, 38시간 파워 리저브의 칼라버 968A를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 둥근 조각들이 연상되는 케이스가 인상적이다. 옐로 골드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 교체 가능한 그린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워블로 빅뱅 원 클릭 조이풀 스틸 오렌지** 33mm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 36개의 오렌지 사파이어 세팅 베젤, 그리고 쟁스톤과 컬러를 맞춘 오렌지 라버 스트랩의 조합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샤넬 보이프렌드 워치** 인덱스를 과감히 생략하고, 18K 베이지 골드 직사각형 케이스와 핑크 레더 스트랩을 강조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디올 라 디 마이 디올 타임피스** 25mm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핑크 자개 다이얼을 세팅하고,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크라운을 적용해 하이 주얼리 못지않은 광채를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IWC 포르토포노 오토매틱 문페이즈 37 벨의 해 에디션** 12시 방향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에 황금빛 달과 별이 자리하며, 붉은 다이얼 위 골드 도금 핸즈가 인덱스와 어우러져 빛을 발한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댄턴. 벨 모양을 정교하게 담은 골드 로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천4백70만원. 문의 1877-4315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밤하늘 별의 움직임에서 영감받아 실제 철문식 조각으로 장식하고, PVD 문사인™ 골드 컬러를 입혀 다이얼을 완성했다. 여기에 6시 방향의 날짜창과 다이아몬드 인덱스, 스틸 &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천6백만원대. 문의 02-543-2999 **에디터 김하얀**

이시호트 김지현



(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로즈 링 18K 화이트 골드에 7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만개한 장미를 구현했으며, 오픈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4천6백만원. 문의 1877-4275 **불가리 피오레버 링** 오픈워크 구조의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4개의 꽃잎과 중앙의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1천6백80만원. 문의 02-6105-2120 **다이아나 미모사 링** 다이아몬드로 꽃잎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재현하고, 그 가운데 큼직한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해 미모사꽃의 강인함을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디올 파인주얼리 디오레트 링** 핑크 골드에 래커로 마감한 형형색색 꽃다발과 다이아몬드 장미 한 송이를 장식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샤넬 파인 주얼리 까멜리아 링**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동백꽃 한 송이를 우아하게 형상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반클리프 아펠 플레르 드 하와이 링** 활기찬 정원의 꽃과 컬러에서 영감받아 화려하게 완성했다. 핑크빛 로돌라이트 꽃잎과 다이아몬드 장식 암술, 그리고 옐로 소재 잎사귀에서 매종의 남다른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 오픈워크 꽃 위에 꽃술부터 꽃잎까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또 다른 꽃을 겹쳐 볼드하게 표현했다. 1천5백79만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김하얀**

Flowering Stones

꽃보다 반지다. 실제 꽃을 능가하는 섬세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플라워 링 7.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이시호트 김지현



영화 <휴민트>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한 정유진.
아름다운 계절에 만난 그녀와 달콤한
파스텔컬러가 어우러진 봄의 속삭임.
PHOTOGRAPHED BY LIMHANSOO

Whispers in **BLOOM**





베이비 핑크 컬러의 두 버튼 재킷 69만5천원 렉토, V넥 화이트 드레스
1백79만원 포르테 포르테, 누드 톤 슈즈 66만2천원 MM6.

어깨에 스카프가 달린 유니크한 디자인의 셔츠 1백87만원,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는 풍성한 티어드 스커트 3백65만원 모두 돌체앤가바나.





리본으로 여미는 뒤트임이 포인트인 화이트 블라우스 1백21만8천원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파스텔컬러 볼륨 스커트 1백58만2천원 수잔망.



몸에 피트되는 그린 컬러 코르셋 드레스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드롭 이어링 45만5천원 헬레나 톨린.

컬러 믹스가 사랑스러운 니트 카디건 5백67만원 **샤넬**, 네크라인이 깊이 파인 크롭트 톱 58만9천원, 화이트 와이드 팬츠 28만8천원 모두 **순진**.

레이스 디테일과 시스루 소재의 그레이 컬러 스커트 2백80만원 **질 샌더**, 미니멀한 하이백 슬리브리스 톱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베이지 컬러 메리제인 슈즈 1백25만원 **지미주**.

헤어 권도윤 메이크업 정윤미 모델 정유진 스타일리스트 박지영, 정혜진 진행 이수



샤넬 080-805-9628
질 샌더 02-3185-2171
지미주 02-3495-7718
카하라 02-2038-8665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 02-2056-1234
수잔팡 02-2056-1234
둘체앤가바나 02-3442-6888
렉토 02-790-0798
포르테 포르테 02-3479-1293
MM6 02-2056-0990
헬레나 블린 02-2056-0990
순진 soonjeans_official@naver.com

Get



MONTBLANC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보헨 컬렉션의 다이얼에 딥 블루 색조를 입힌 버전. 지름 34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수채화로 그려낸 듯한 셀레스티얼 디스크가 돋보이는 데이 앤 나이트 워치. 6백78만원 **홍블랑**. 문의 1877-5408

The



BOUCHERON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메종의 아이코닉한 에니멀 컬렉션에서 새로 출시한 뱀뱀용 드 뉴 링. 1개의 펜시 컷 화이트 머더오브밀 핀타다 맥시마 11.45캐럿과 1백3개의 라운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0.71캐럿을 세팅한 화이트 골드에 블랙 레커로 완성한 나비 모티브가 유니크하다. 가격 미정 **부쉐론**. 문의 080-822-0250

List



OMEGA
 블루 컬러의 천연 어벤추린 스톤 다이얼로 포인트를 준 워치로 지름 29mm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이 시선을 사로잡는 컨스텔레이션 3천5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3467-8632

갑자기 찾아온 봄처럼 잠잠했던 마음을 뒤흔들 워치 &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JEONGSEOKHEON



CHANEL WATCHES
 사벨이 재해석한 매트 블루 컬러 세라믹과 스틸 소재로 견고하고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J12 워치. 칼리버 12.1 오토매틱 매뉴팩처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PANERAI

이탈리아 해군 특수부대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버 워치로 브랜드의 밀리터리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다. 견고한 케이스와 단방향 회전 베젤, 야광 성능을 향상시킨 인덱스와 핸즈로 높은 가독성을 자랑하는 섬머저블 마리나 밀리타레 PAM01698 2천7백27만원 **파네라이**. 문의 02-2118-6256



FRED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포스텐 모티브를 중앙에 배치하고 양옆으로 꼬임 디테일의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로 볼륨감을 부여한 18K 옐로 골드의 포스텐 미디엄 링. 가격 미정 **프레드**. 문의 02-514-3721



GRAFF

스톤에 대한 메종의 집념과 커팅 기술로 완성한 1.5캐럿 오벌 컷 옐로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발하며 우아함을 완성하는 프로미스 링 4천4백52만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POMELLATO

프롱 없이 57파치의 비정형 커팅 방식으로 연출한 클래식 사이즈의 에미시스트와 프리 사이즈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사함을 더한 누도 두아 에 무아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030-8321-0441 **에디터 성경민**



Soft Steps

가볍지만 클래식하게 스프링 룩을 완성하는 뉴 로퍼.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더링 로고 포인트의 아이코닉한 울 디자인 화이트 로퍼 1백36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에 버건디 컬러로 클래식한 매력을 자아내는 세르시오 워크 로퍼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슬림하고 군더더기 없는 세이프가 돋보이는 블랙 고트 스킨 소재 오라 로퍼 1백45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라이트 블루 컬러가 밝고 경쾌한 무드를 선사하는 스웨이드 카프 스킨 소재의 울 로퍼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3-6622. 트렌디한 플랫 스타일의 로퍼로 간결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포임 디테일을 더해 멋스러움을 배가한 사야니 레더 소재 사바토 솔리퍼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94. 카프 레더 어퍼, 블루 컬러의 고무 소재 솔, 블랙 라이트 버멜로 가죽으로 제작한 레이스업 스타일 로퍼로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오마주해 탄생했다. 가격 미정 쥘 샌더, 문의 02-6905-3530
 에디터 성정민



이시스트리트 김지현

Fresh Men

남자의 봄 스타일링은 스프링 아우터로 결정된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왼쪽부터) 탈착 가능한 레더 칼라로 투웨이 연출이 가능해 룩에 포인트를 선사하는 베이지 코트 맨 트렌치코트 가격 미정 다울, 문의 02-3280-0104. 간결하고 타임리스한 라인의 코트로 인감이 없어 가볍고, 뒷면 상단에 든든한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코트 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밝은 레드 컬러의 나일론 소재로 조절형 엘라스틱 스트랩과 버튼 홀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돕는 보머 스타일 블루중 3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왼쪽부터)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소재에 주름 디테일이 디자인적 감성을 부여하는 크리스프 울 소재 재킷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리넨 소재의 화이트 컬러 재킷으로 가벼우면서도 격식 있는 룩을 완성하는 알리스타에 더블 브레스티드 피크 재킷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에디터 성정민



이시스트리트 김지현

파시미 코튼으로 제작해 벨벳처럼 부드러운 촉감이 돋보인다. 패치형 포켓 디테일을 더해 멋스러운 필드 재킷 3백32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샤넬 루주 코코 립스틱
105 메이페어 핑크 베이지
컬러로 원톤부터 쿨톤까지
모든 피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컬러, 소프트한
텍스처로 입술에 가볍고
매끄럽게 바를 수 있다.
3.5g 6만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신정민



인셀럼 더마톨로지 크림 서벗같이
가볍고 쿨링감을 선사하는 제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아들며
높아진 피부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
진정 효과를 선사한다. 50ml
7만9천원. 문의 1522-8144
_by 에디터 성정민

NEW FOUNDATION

나스 네츄럴 매트 톤웨어
파운데이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이라면 반가를 수밖에
없다. 여러 번 덧발라도
답답함 없이 모공과 요철,
잡티 등 피부 결점을
매끄럽게 커버해준다.
30ml 8만2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하얀



시세이도 얼티뮤 얼티 오일
발효 카멜리아 성분을 함유해
보습부터 탄력 케어까지 모두
가능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부위는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는 만능템이다. 75ml 11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김하얀



SCENT MOOD

메종 마르지엘라 프래그런스 레플리카 업 댓
던 EDT 새벽 공기 속에서 피어난 장미를
표현한 플로럴 우디 향. 중성적인 무드와
은은한 스파이시함이 봄여름에 잘 어울린다.
100ml 22만원. 문의 080-363-5454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겔랑 테라코타 쥬리 뎁
히알루론산과 아르간 오일을
함유해 촉촉하고 밀림 없이
깔끔하게 밀착되며,
자연스러운 톤업과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30ml 8만8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인생로랑 뷰티 메이크 미 블러쉬 파우더 블러쉬 44
누드 라발리에 미세 입자 피그먼트와 스파클 성분
피부에 스며들어 은은한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홍조를 연출한다. 6g 8만5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성정민



클라랑스 New 더블세럼 파운데이션 L3N
세럼과 파운데이션이 분리된 듀얼 체임버
구조로 사용 시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되어
촉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피부 결점을
커버해준다. 30ml 10만5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신정민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컬러 펜슬 301
립과 아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오버 립
연출은 물론, 눈 밑 애교살을 강조하기에도
적합한 멀티 펜슬 1.41g 3만8천원.
문의 080-514-8942
_by 에디터 신정민

* 상영시간(30분) 및 장소, 관람시간(30분) 및 장소, 상영시간(20분) 및 장소, 상영시간(20분) 및 장소



1 셸린스 리틀 하프 문 백
셸린스가 하프 문 실루엣이 돋보이는 리틀 하프 문
백을 출시했다. 부드러운 램 스킨으로 제작해 가볍
고 유연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브랜드의 시그니처
트리앵플 골드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다. 블랙과 와
인빛 시라, 베이지 톤의 샌드 캐슬 컬러로 구성해 선
택의 폭을 넓혔으며, 스트랩 조절이 가능해 클러치
또는 숄더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577-
8841

2 쇼메 비드 쇼메 컬렉션
별과 육각형 허니콤 모티브로 완벽한 대칭과 사랑
의 견고함을 상징하는 쇼메의 '비드 쇼메'가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허니콤 구조와 원형 디자인을
통해 자연에서 비롯된 메종의 미학을 담아낸 것이
특징. 미러 폴라싱 골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
드가 어우러져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광채가 돋보인
다. 문의 02-1670-1180

3 에르메스 2026 S/S 오브제 프레젠테이션
에르메스가 에르메스 메종 도산에서 2026년 S/S
오브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미지의 세계'라
는 테마 아래 '모든 창작은 뜻밖의 발견이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블루와 그린의 그라데이션 컬
러로 공간에 깊이를 더하고, 흐르는 구조물을 따라
아이템을 전시해 조화롭게 완성했다.
문의 02-542-6622

4 다이아나 벨 에포크 마레아 네크리스
다이아나의 아이코닉한 크로스 디자인에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세팅한 '벨 에포크 마레아 네크리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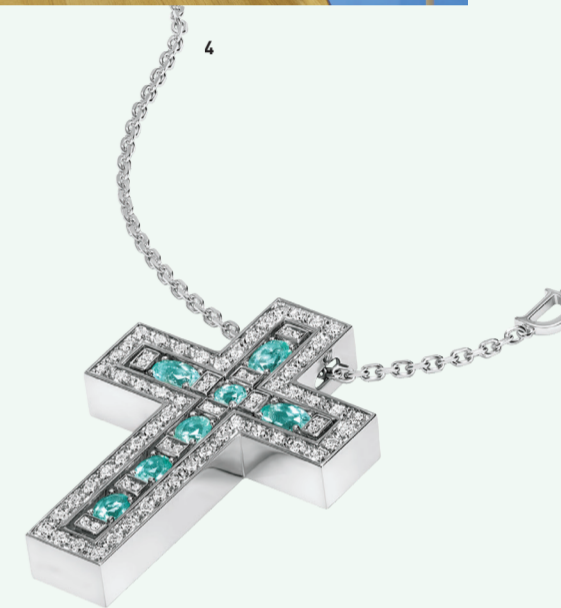


플래그십 스토어인 까사 다이아나 청담 오픈을 기념
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아이템이다. '바다의
물결'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마레아'에서 유래한 네
이밍처럼 포인트로 세팅한 파라이바 투르말린 특유
의 청량한 컬러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킨다.
문의 02-6204-1924

5 디올 뷰티 어딧드 퍼퓸 로지, 피치, 퍼플
디올 뷰티가 과일과 싱그러운 재해석한 프루티
플로럴 향의 3가지 어딧드 퍼퓸을 시그니처 실루엣
보틀에 담아 새롭게 출시했다. 바닐라 휘핑크림 향
을 베이스로 로즈 & 라치 향의 로지 글로우, 아이리
스 & 라즈베리 향의 퍼플 글로우, 그리고 제스민 &
피치 향의 피치 글로우까지, 3가지 향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342-9500

6 랑방컬렉션 메시 임브로이더리 메리제인 플랫폼
랑방컬렉션이 가벼운 메시 텍스처에 레더링 자수가
돋보이는 새로운 메리제인 플랫폼 슈즈를 공개했다.
양가죽 소재와 쿠셔닝을 더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
사하며, 클래식한 무드를 부여한다.
문의 1800-5700

7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크로노그래프 38mm
오데마 피게가 새로운 로열 오크 크로노그래프
38mm 모델을 공개했다. 수직 클러치 시스템을 갖
춘 일체형 칼럼 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셸프
와인딩 칼리버 6401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38mm 로열 오크 모델에 최초로 적용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정교한 구조를 드러내
며, 새틴 브러시 처리한 경사면으로 고급스럽게 마
감했다. 문의 02-543-2999



8 부쉐론 콰트로 XS
부쉐론이 대표 컬렉션 '콰트로'를 얇고 작은 사이즈
로 만든 '콰트로 XS'를 출시했다. 신제품 콰트로 XS
는 브랜드의 상징인 4개의 밴드 디자인 모티브는
유지하면서 얇은 두께로 완성했다. 이번 컬렉션에서
는 무채색의 조화를 강조한 블랙 에디션 스톤 사이
즈 밴글도 함께 선보였다. 문의 080-822-0250

9 키린 울루 미니 솔리테어
파인 주얼리 브랜드 키린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울루 미니 솔리테어' 컬렉션을 제안한다. 네크리스
와 이어링은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선보
이며, 목선과 귀를 감싸는 미니멀한 실루엣이 특징
이다. 문의 02-310-5189



* 상영시간(30분) 및 장소, 관람시간(30분) 및 장소, 상영시간(20분) 및 장소, 상영시간(20분) 및 장소

RALPH LAUREN